

축 사

어느덧 추운 겨울이 지나고 만물이 생동하는 봄이 우리 곁에 찾아 왔습니다.

먼저, 대한불교 관음종을 개산하신 태허 조사스님의 탄신 108주년을 맞아 국제보살계를 봉행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태허스님은 1930년 경운원기 선사를 은사로 선암사에서 출가하신 이후, 일본 게이오 대학으로 유학을 떠나 ‘禪과 敎의 일체화’를 추구하셨습니다. 또한, 한국전쟁 이후 혼란에 빠진 중생들을 교화하기 위해 파고다 공원에서 거리 설법과 라디오 방송을 통해 중생교화에 노력하셨습니다.

한국불교의 중흥과 보살불교 운동을 펼치셨던 스님의 유업을 이어받아 오늘 대중들에게 보살계를 설하고, 수계를 받도록 이끄는 관음종의 후학들에게도 격려를 아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108이 의미하는 불교적 의미는 오관 즉 눈, 코, 귀, 입, 및 감각 기관이 대상을 접할 때 좋다, 나쁘다, 그저 그렇다는 서로 같지 않아서 18가지 번뇌를 일으키고 이 번뇌는 좋고, 나쁘고를 분별하여 36가지 번뇌로 분화되며, 이 번뇌가 과거, 현재, 미래 즉 삼세로 이어져 108가지 번뇌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번뇌를 끊게 하는 10중 대계, 48경계야 말로 스님들과 불자들이 받아 지녀야 할 부처님의 계율인 것입니다.

태허 조사스님의 탄신 108주년을 맞는 이번 국제보살계는 이러한 의미에서 보다 값지고 의미있는 계산림이라 하겠습니다.

더구나 일본을 대표하고, 말레이시아를 대표하는 고승 대덕 스님께서 증명 법사로 나서 주신 것은 이 계를 받아 지니는 사부대중 모두는 부처님의 가피를 받는 것과 함께 불법을 수호하며, 정진하는 진실한 불자로 거듭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국제보살계의 봉행을 축하드리며, 원만히 회향과 함께 관음종의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불기2556(2012)년 4월 4일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